

북측과 물밑 접촉... 남북미 판문점 회동 큰 영향 미친 듯

광주세계수영대회 북한 참가 가능성 커진 배경과 전망

참가 땀 대회 흥행·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긍정적 영향

정부·靑 “통보받은 바 없다” ... 일부 “북 참여 쉽지 않아” 관측도

북한이 오는 5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참가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일단 북한의 참가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흥행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손을 맞잡으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참가가 현실화된다면 추후 진행될 북미 간의 실무협상은 물론 남북 간의 대화 등에 긍정적 흐름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북한의 실제 김영조 선출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과 연결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라인’을 통해 북측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여를 꾸준히 타진, 긍정적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FINA(국제수영연맹)와 광주시가 이번 대회 엔트리 마감인 4일(현지시간)을 넘기더라도 북한이 개막전까지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북한의 ‘지각 참가’를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3일 광주시의회 보고를 통해 “오는 5일 북한의 최종 답변이 예정돼 있다”면서 “북측의 최종 답변이 ‘참가’ 쪽으로 기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 관계자는 “대회 엔트리 마감을 넘겨서라도 북한의 참가를 받아주는 안에 대해 FINA 코넬 마르를레스쿠 사무총장과 협의하고 마쳤다고 시의회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응원단의 광주 방문은 북한의 예상 참가 선수단 규모가 작고 수영이라는 단일 종목이라는 점에서 북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관심을 모은 북한 공연단의 광주공연도 힘을 전방이

다. 광주시는 시간이 촉박해 10여명 단위의 소규모라도 북한 공연단의 광주공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북측에서는 “소규모 공연은 격식에 맞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수영연맹(FINA)의 배려로 북한 참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FINA는 대회 엔트리 마감 이후 참가 가능 방침과 함께 북한의 참가비용과 중계권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참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그동안 수영선수권대회 흥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해 정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과 접촉했지만 남북, 북미 관계 경색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수영대회 참가를 통해 체육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참가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북한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참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를 유리 그릇 다루듯이 신중을 기하는 시점”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여를 환영하지



전남대병원 FINA 의료지원단 출범 전남대병원이 3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FINA) 의료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건강한 대회'를 위한 힘찬 걸음을 다졌다. 이번 의료지원단은 본원·화순전남대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전남대치과병원 4개 병원의 응급의학과·내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방사선실·물리치료실·치과 등 7개과에 의사·간호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총 112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만 현 상황에서 선불리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아직까지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2015 러시아 카잔, 2017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는 3개 종목에 25명이 참가했다. /임동욱·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심에 공공시설 집적...천문학적 비용에 효과도 의문

전남 시·군 추진 '압축도시' 어떻게 돼 가나

재정지원 받으려 인구 과다 책정
분권 추세 맞춰 지역 실정 맞는
도심·중심지 재생 전략 세워야

전남이 압축도시(Compact City), 즉 중소도시의 도심, 군의 읍·면 중심지에 행정·의료·금융·교통·문화 등 공공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정책을 눈을 돌린 것은 2015년이다. 일본 선진 지자체 방문, 국토연구원 및 광주전남연구원 자문, 간담회, 시·군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에는 압축도시를 ‘생활거점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다. 시·군이 이를 받아들여 2018년 말까지 순천·나주·광양·담양·구례·고흥·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 등 15개 시·군이 도시·군계획에 반영을 완료했다. 목포·여수·곡성·보성·화순·진도·신안 등 7개 시·군 역시 이를 계획에 포함시키는 중이다.

하지만 이들 공공시설을 토지가격이 높은 도심 및 중심지에 집적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데다 이미 외곽 주거지에 자리한 시설들을 다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감소 계획’이 아닌 ‘인구 증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심과 중심지로 공공시설을 집적시키는 것 역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도심 및 중심지에 공공시설 집적 가능 할까=전남도는 2017년 압축도시를 ‘생활거점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 뒤 ▲중소도시 도심정비형 ▲농어촌 중심지정비형으로 구분했다. 중소도시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300~500m 이내에 중심거점, 생활거점 등을 조성하고, 이들 거점에 주민들의 거주를 촉진하면서 행정·의료·금융·교통시설 등 공공시설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군 지역은 거점지구 내 공공공익시설의 계획적 배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유희부지 등 집중 정비 유도, 거점 간·배후 마을 간 대중교통 및 보행교통 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문제는 이미 22개 시·군이 인구의 급격

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계획’에 따라 시가지 외곽 개발을 계속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공공시설을 역시 부지 가격에 비싼 도심 및 중심지에서 벗어나 외곽 주거지에 자리해 있어 쉽게 이전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여전히 미래 인구 과다 책정한 시·군 외곽 개발 못 버려=쇠락한 도심 및 중심지를 되살리겠다는 압축도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정작 도시·군 정비계획에서 미래 인구는 현 인구보다 수천명에서 수만명 이상을 부풀려놓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다 책정한 인구를 기반으로 개발 사업의 명분을 얻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겠다는 의미다. 도시정책의 모순인 셈이다.

지난해 말 현재 23만5000여명의 인구인 목포는 31만명, 28만7000여명인 여수는 37만4000명, 7만3000여명인 해남은 12만5000명, 5만8000여명인 영암은 12만5000명을 미래 목표연도(2020년 또는 2025년)의 인수로 추정했다. 이 같은 부풀려진 인구를 토대로 시가지 외곽에 주거지를 개발하고, 그 주변에 공공시설을 배치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확장된 시가지,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도심 살려야=압축도시의 도시 내부 고밀개발을 통해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 외곽 및 농지지역의 개발 억제 등을 강조하는 도시정책이다. 도시 외형 팽창으로 도심 공동화, 도시 외곽의 환경 파괴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야마시 등 일부 중소도시에서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공공교통 이용객수 증가, 중심지까지의 소비액 증가, 도심 주택 및 인구 증가, 민간 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이 압축도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국·도·군·부·시·군·면·동·읍·면·리 단위 사업의 집적시키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현재 중앙부처의 일률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추세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심·중심지 재생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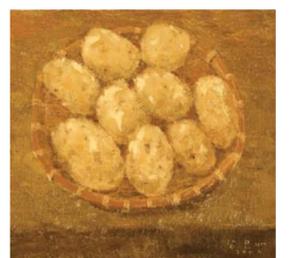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감자와 땅은 하나' 황금빛으로 표현



김은영의 '그림 생각'

(273)감자



강요배 작 '감자'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는 냄새/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 <김선우 작 '감자 먹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 감자가 참 맛있다. 시인과 달리 어릴 적 가끔 먹어서 그리움으로 더욱 좋아하게 된 것인지 퇴근길 1t 트럭에서 판매하는 남작감자 1박스를 5000원에 사서 매일 찌서 먹고 구워 먹고 강판에 갈아 감자전으로 먹고 있는 맛이 치명적이다. 포실포실 하얀 분이 가득한 남작감자를 갈탄하면서 먹게 되는 것은 가난한 시절의 식량이 아니라 추억이 더해진 건강한 간식이 되어서 일까.

감자를 그림의 대상으로 끌어와 우리에게 아릿한 정서를 자극한 것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노란 접시에 담긴 감자'를 비롯해 그 유명한 '감자 먹는 사람들'일 것이다. 황금빛 랩프 불빛 아래 농민들이 손으로 한 노동과 정직

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는 감자는 그래서 더 상징적이었다.

우리 시대에 감자그림 한 점으로 회화적 조형성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강요배 작가(1952~)의 '감자' 그림이다. 작가의 '감자' (2005년 작)는 제주 땅에서 자란 감자를 서정적이고 소박한 필체로 표현했는데 금방 깨낸 감자인양 땅에 스민 기운이 온전히 전해진다.

특히 제주에서는 지난 날 먹거리가 부족했을 때 감자로 연명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소쿠리에 담긴 감자 한 알 한 알의 묘사가 정성스럽다. 사람을 먹여 살려온 감자, 감자를 여물게 한 땅은 물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듯 둘 다 황금빛 색상이 조화를 이룬다. 먹음직스러운 감자를 보는 마음이 절로 밝아진다.

<광주 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 박사>



다문화를 피우는 꽃,
존중이 밑거름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생각들이 소통되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에 건강한 다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 김용규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